KIEP

Country Profile

일 본

2006년 12월 7일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주요 이슈

- 3/4분기 실질GDP성장률,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아베 신임총리의 등장과 경제노선
- 일본의 FTA 추진 동향

세계지역연구센터


주요 철도
주요 도로
국경선
수도
주요 도시
공항
와카나이
아시카와
삿포로
홋가이도
오쿠시리도
하코다테
오시모
동 해
아오모리
아키타
모리오카
혼슈
아마가타
센다이
사도시마
니가타
후쿠시마
나가오카
이와키
도야마
히타치
가나자와
나가노
일 본 도쿄
후쿠이
오키
도젠
돗토리
후나바시
가와사키
요코하마
미츠에
기후
나고야
교토
시즈오카
오시마
고베
오사카
하마마츠
니지마
히로시마
미야케지마
와카야마
미쿠라지마
기타큐슈
도쿠시마
후쿠오카
미츠아마
하치죠지마
나가사키
구마모토
시코쿠
규슈
미야자키
아마미오시마
가고시마
도구노시마
다네가시마
오키노 에로부시마
오키나와
나하
태 평 양

차 례

Ⅰ. 일반개황 ····· 4

Ⅱ. 주요 경제지표 ····· 5

1. 최근 경제동향 ····· 5
2. 향후 경제전망 ····· 5
3. 대외경제관계 ····· 6
   가. 품목별 수출입 ····· 7
   나. 지역별 수출입 ····· 7
   다. 주요국별 무역수지 ····· 8
   라.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 9

Ⅲ. 경제 현안 ····· 10

1. 최근 경제동향 ····· 11
2. 주요 경제 현안 ····· 14
   가. 국내경제 현안 ····· 14
   나. 대외경제 현안 ····· 16
3. 향후 경제전망 ····· 19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 22

1. 교역 부문 ····· 22
2. 투자 부문 ····· 24

참고자료 ····· 26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377,835 km2
○ 인　　구: 12,770만명(2006년 8월 현재)
○ 기　　후: 계절풍 온대성 기후
○ 시 간 대: 한국과 동일

■ 행　　정

○ 공식국명: 일본(Japan)
○ 수　　도: 동경(인구: 1,268만명, 2006년 6월 현재)
○ 행정조직: 1都(東京都), 1道(北海道), 2府(大阪府, 京都府), 43縣

■ 정　　치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 국가원수: 아키히토(明仁) 천황(年號는 平成)
○ 의회형태: 양원제(중의원: 500명, 임기 4년, 참의원: 252명, 임기 6년)
○ 총　　리: 아베 신조(安倍 晋三, 2001년 9월 26일 출범)
○ 주요정당: 자민당(집권당)과 공명당의 自公 2당 연립정권 체제,
민주당(제 1야당), 사민당 등

■ 사회·문화

○ 민　　족: 일본족(몽고족과 극소수의 아이누족, 코로포크족 등)
○ 언　　어: 일본어(표준어: 동경어)
○ 종　　교: 神道(9,200만명), 불교(8,400만명), 기독교(84만명) 등
○ 재일한국인: 약 90만명(2005년 말 현재)
○ 공 휴 일: 元旦(설날), 성인의 날, 건국기념일 등
○ 도 량 형: 미터법
○ 공식 화폐: 엔(¥)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12월 8일(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발효)
○ 협정체결: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한일 어업협정,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 한일 통화스왑 협정, 한일 투자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 주요교류: 정기 각료회담, 고위급 외교정책협의회, 한일의원연맹 등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2003	2004	2005	2005	2006		
					4/4	1/4	2/4	3/4
국내총생산(실질)	조엔	517.6	526.4	543.8	546.5	550.8	552.9	555.7
실질GDP성장률	%	2.3	1.7	3.3	1.0	0.8	0.4	0.5
광공업생산지수	%	3.5	4.0	1.6	2.8	0.6	0.9	1.0
소비자물가지수	%	-0.2	-0.2	0.1	-0.1	0.0	0.0	0.3
실업률	%	5.1	4.6	4.4	4.5	4.2	4.1	4.1
수출	십억불	469.9	565.0	598.2	155.9	151.2	158.2	166.3
수입	〃	381.5	454.7	518.6	135.9	137.9	142.0	148.5
환율(평균)	엔/달러	113.0	107.5	113.3	117.3	116.9	114.4	116.1
외환보유고 (해당기말)	십억불	826.6	837.7	852.0	846.9	852.0	864.9	881.3

주: 1) GDP 성장률,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임.
2) 회계연도(당해년 4월~익년 3월)기준. 단, 수출・수입・경상수지는 暦年(1~12월)기준.

자료: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四半期經濟豫測』. 2006. 11.
日本 貿易振興會(JETRO). 『日本の貿易統計・國際收支統計』.
日本銀行. 『金融經濟統計月報』각호.

2. 향후 경제전망

	해외기관			국내기관						전체 기관 평균
	OECD	IMF	Global Insight	日經研	NIKKEI NEEDS	日總研	닛세이	히다치	신금중앙	
2006	2.8	2.7	2.5	2.3	2.3	2.3	2.3	2.5	2.4	2.5
2007	2.2	2.1	2.1	1.9	1.8	2.5	1.8	1.8	2.1	2.0

주: 연도는 회계연도(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 기준임.

자료: OECD(2006 May), IMF(Sept.), Global Insight(2nd Quarter),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11.17), 日本經濟新聞(NEEDS)(11.14), 日本總合研究所(11.15), ニッセイ基礎研究所(10.17), 日立總合計畵研究所(10.26).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 십억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1-9	
					금액	비중
총수출	415.9	469.9	565.0	598.2	475.7	100.0
<10대수출상품>						
자동차	70.0	76.6	85.1	90.5	76.6	16.1
반도체등전자부품	30.9	35.1	40.6	40.1	30.2	6.3
철강	15.5	17.8	23.3	27.7	21.9	4.6
자동차부품	16.9	19.8	23.7	25.5	19.2	4.0
사무용기기	24.0	22.5	24.1	23.5	17.2	3.6
과학광학기기	15.1	17.6	23.1	22.6	15.9	3.3
원동기	13.9	14.9	17.7	19.9	14.7	3.1
유기화합물	10.6	12.7	15.7	17.2	13.4	2.8
플라스틱	9.2	10.8	13.7	15.6	12.9	2.7
영상기기	12.9	15.5	17.6	16.3	10.9	2.3
총수입	336.8	381.5	454.7	518.6	428.4	100.0
<10대수입상품>						
원유 및 粗油	36.6	45.8	56.1	80.0	76.1	17.8
사무용기기	21.4	23.6	26.6	27.5	19.7	4.6
반도체등전자부품	15.2	17.3	21.0	21.4	18.8	4.4
의류, 동 제품	17.5	19.3	21.5	22.5	17.4	4.1
액화천연가스	11.9	14.5	15.2	18.1	16.9	3.9
석유제품	6.6	8.6	11.0	13.5	12.0	2.8
과학광학기기	8.5	9.7	11.3	13.2	11.7	2.7
어패류	13.3	12.7	14.2	14.2	9.7	2.3
음향영상기기	8.6	9.9	12.8	14.6	9.7	2.3
비철금속광	3.5	4.2	6.8	9.1	9.5	2.2

자료: JETRO (http://www.jetro.go.jp)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십억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1-9	
					금액	비중
총수출	415.9	469.9	565.0	598.2	475.7	100.0
〈주요수출국〉						
미국	118.6	115.4	126.8	134.9	107.2	22.5
중국	39.9	57.2	73.8	80.3	66.9	14.1
한국	28.6	34.7	44.2	46.9	37.2	7.8
대만	26.2	31.2	42.0	43.9	33.0	6.9
홍콩	25.4	29.8	35.4	36.1	27.0	5.7
태국	13.2	16.0	20.3	22.6	17.0	3.6
독일	14.1	16.3	19.0	18.8	14.9	3.1
싱가포르	14.2	14.8	18.0	18.5	14.4	3.0
영국	11.9	13.2	15.0	15.2	11.5	2.4
네덜란드	10.6	11.7	13.4	13.2	10.6	2.2
총수입	336.8	381.5	454.7	518.6	428.4	100.0
〈주요수입국〉						
중국	61.7	75.2	94.2	109.1	86.2	20.1
미국	57.6	58.7	62.4	64.5	50.8	11.9
사우디아라비아	11.6	14.5	18.5	28.7	28.5	6.6
예멘	11.6	14.3	18.3	25.3	24.3	5.7
호주	14.0	15.0	19.4	24.6	20.5	4.8
한국	15.5	17.8	22.0	24.5	20.1	4.7
인도네시아	14.2	16.4	18.7	20.9	17.8	4.1
대만	13.5	14.3	16.7	18.2	15.0	3.5
독일	12.4	14.2	17.1	18.0	13.7	3.2
태국	10.5	11.8	14.1	15.7	12.4	2.9

자료: JETRO (http://www.jetro.go.jp)

다. 주요국별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1-9
미국	60.9	56.8	64.3	70.4	56.5
중국	-21.8	-18.0	-20.4	-28.7	-19.3
한국	13.1	16.8	22.2	22.3	17.1
대만	12.7	17.0	25.3	25.8	18.0
홍콩	24.0	28.5	33.8	34.6	25.8
태국	2.7	4.1	6.2	6.9	4.5
독일	1.7	2.2	1.9	0.8	1.2
싱가포르	9.2	9.3	11.7	11.8	8.7
영국	6.5	7.3	8.5	8.4	6.4
네덜란드	8.8	9.8	11.4	11.1	8.9

자료: JETRO (http://www.jetro.go.jp)

라.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1~6
〈해외직접투자〉 연간총액		32,149	28,895	30,968	45,461	19,685
국별	미국	7,484	10,831	7,527	12,126	1,297
	중국	2,617	3,982	5,868	6,575	3,323
	네덜란드	1,454	3,502	3,353	3,315	3,367
	영국	2,038	2,463	1,628	2,903	4,795
	태국	528	676	1,874	2,125	799
	한국	439	332	771	1,736	620
	인도네시아	309	480	503	1,185	531
	브라질	749	1,097	△ 66	953	773
업종별	금융·보험업				9,227	429
	수송기계				8,611	2,702
	사매·소매업				4,623	841
	전기기계				4,377	1,879
	화학·의약				3,363	1,393
	식료품				1,685	500
	정밀기계				1,419	553
	석유				531	1,680
〈외국인직접투자〉 연간총액		9,133	6,287	7,809	3,223	△ 11,633
국별	네덜란드	1,727	3,179	3,670	2,541	△ 8,172
	홍콩	△ 17	38	298	960	△ 2,130
	싱가포르	119	330	391	598	172
	룩셈부르그	405	317	261	363	50
	미국	2,446	△ 612	1,370	308	△ 554
	독일	561	1,751	1,162	237	△ 603
	영국	536	△ 438	△ 316	132	552
	한국	64	△ 97	249	31	31
업종별	운수업				2,108	13
	도소매업				1,157	246
	통신업				912	266
	금융·보험업				645	4,587
	섬유				188	16
	서비스업				178	422
	수송기계				32	△ 2,036
	화학·의약				△ 1,168	201

주: 1) 국제수지, 純플로우 기준
2) 엔화표시 수치를 일본은행 기준의 평균환율로 달러 환산, △는 회수 초과 의미
3) 업종별 2006년 수치는 1~3월 기간임.

자료: JETRO (http://www.jetro.go.jp/jpn/stats/fdi/)

Ⅲ. 경제 현안

1. 최근 경제동향

■ 일본 내각부가 2006년 11월 14일 발표한 GDP 통계속보(1차 속보치)에 의하면, 2006년 3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5%(年率 2.0%)를 기록,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의 0.4%(연율 1.5%)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이러한 실적은 개인소비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 및 설비투자의 지속세에 기인함.

표 1. 최근 일본경제 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5년			2006년		
				2Q	3Q	4Q	1Q	2Q	3Q
실질 GDP (전기대비연율)	2.3	1.7	3.3	1.3 (5.1)	0.5 (2.0)	1.0 (4.1)	0.8 (3.2)	0.4 (1.5)	0.5 (2.0)
국내수요	1.5	1.2	2.9	1.0	0.6	0.4	0.7	0.4	0.1
민간수요	2.2	2.1	3.5	1.1	0.6	0.7	1.0	0.9	0.4
개인소비	0.8	1.6	2.6	0.9	0.9	0.7	-0.1	0.5	-0.7
민간주택투자	0.0	1.7	-0.2	-1.4	1.5	1.6	1.2	-2.5	0.1
민간기업설비투자	7.0	5.6	7.3	2.3	1.1	0.2	3.7	3.5	2.9
공공수요	-0.5	-1.4	0.8	0.5	0.5	-0.7	-0.2	-1.2	-1.2
정부소비	2.5	1.8	1.4	0.3	0.3	0.1	0.0	0.2	0.1
공공투자	-9.5	-12.4	-1.4	1.3	1.5	-3.6	-0.8	-6.5	-6.7
수출	9.7	11.4	9.1	3.6	2.9	3.7	2.5	0.9	2.7
수입	3.2	8.7	6.5	1.7	3.9	-0.8	2.4	1.4	-0.1

주: * 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일본 내각부, Mizuho總合硏究所(2006. 11. 14)

■ 민간수요: 개인소비 하락 반전, 설비투자 성장 지속

-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7%(2/4분기 +0.5%)로 크게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이는 고용자보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1.3%(2/4분기 +1.9%)로 둔화되고, 폭우 등의 영향으로

하계 소비가 저조한 점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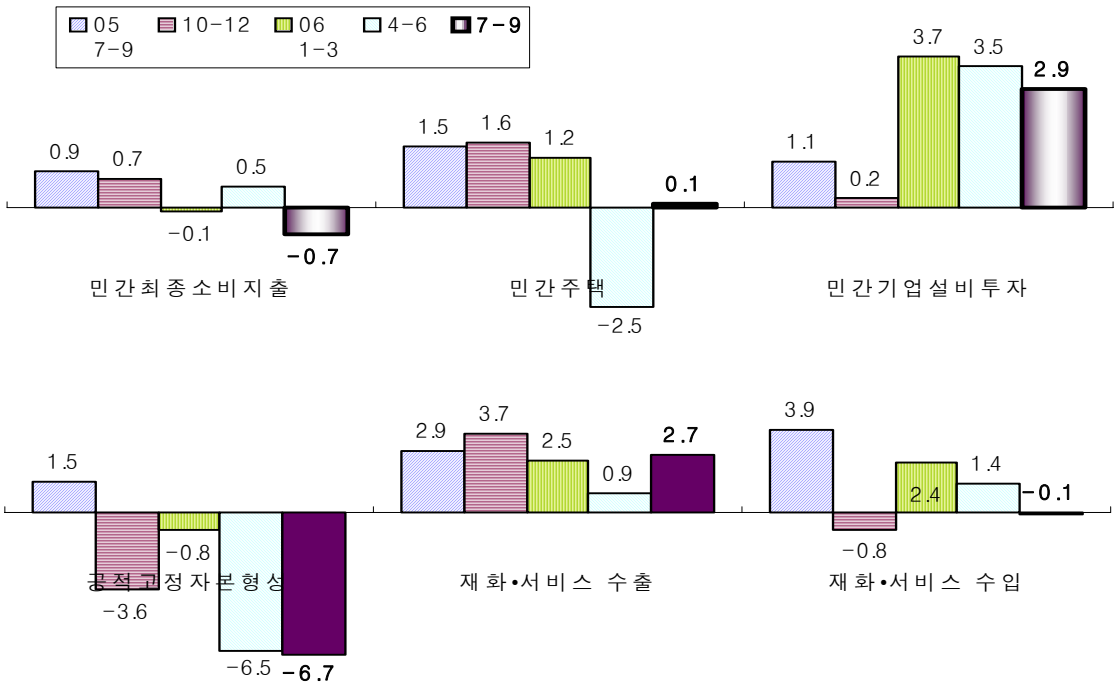
○ 그러나 4/4분기에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연말상여금이 인상되어, 둔화되었던 고용자보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 주택건설투자는 전기대비 +0.1%(2/4분기 -2.5%)로 제자리걸음을 보였음. 지금까지 주택건설투자를 견인했던 임대·분양 아파트 착공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4분기 주택건설투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민간설비투자는 전기대비 +2.9%(2/4분기 +3.5%)로 10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확대는 4/4분기 이후에도 플러스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3/4분기 기계수주가 전기대비 11.1% 감소된 점을 감안하면, 2006년 말부터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그림 1. 주요 항목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 %)



자료: 일본 내각부

■ 공공수요: 감소세 지속, 해외수요: 대폭 증가

- 공공수요는 공공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이 2/4분기 -6.5%에 이어 3/4분기에도 -6.7%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기대비 -1.2%(2/4분기 -0.1%)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했음.

○ 공공사업의 예산 삭감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투자의 감소기조는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공공투자의 감소폭이 과거에 비해 매우 컸기 때문에 2006년 말 이후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전기대비 +2.7%(2/4분기 +0.9%)로 6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음. 이는 엔저를 배경으로 대유럽 자동차·IT 관련, 대아시아 부품·소재 관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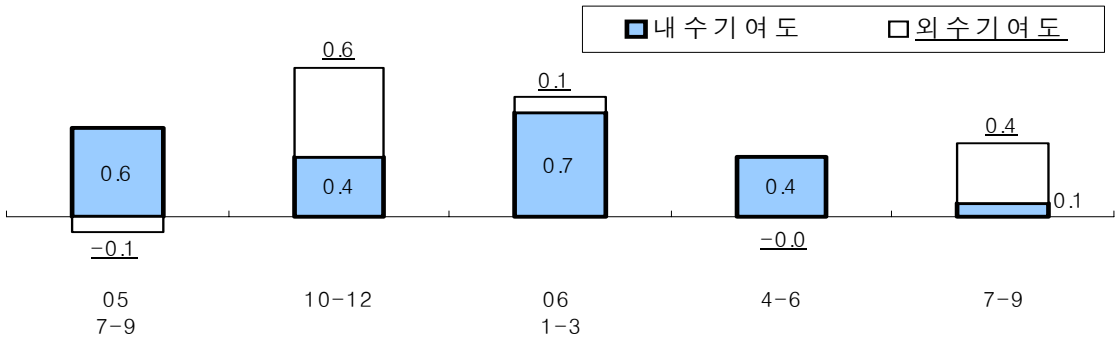
○ 향후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및 중국경제의 과열긴축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와 국내경기 회복에 의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해외수요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제로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GDP 성장에 대한 국내외 수요항목별 기여도

- 국내총지출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국내수요가 전기대비 0.1% 포인트 증가, 재화·서비스의 순수출(해외수요)이 전기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4분기 일본경제는 1/4·2/4분기와 달리 내수보다는 해외 수요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실질 GDP의 내외 수요별 기여도의 추이

(단위: 전기대비 % 포인트)



자료: 일본 내각부

표 2. 수요부문별 기여도 추이

(단위: 전기대비 % 포인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5년			2006년		
				2Q	3Q	4Q	1Q	2Q	3Q
국내수요	1.5	1.2	2.8	1.0	0.6	0.4	0.7	0.4	0.1
민간수요	1.6	1.6	2.6	0.8	0.4	0.5	0.8	0.7	0.3

민간재고투자	0.2	−0.3	0.2	0.1	−0.3	0.1	0.2	0.0	0.3
공공수요	−0.1	−0.3	0.2	0.1	0.1	−0.2	0.0	−0.3	−0.3
공적재고투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수요(순수출)	0.8	0.5	0.5	0.3	−0.1	0.6	0.1	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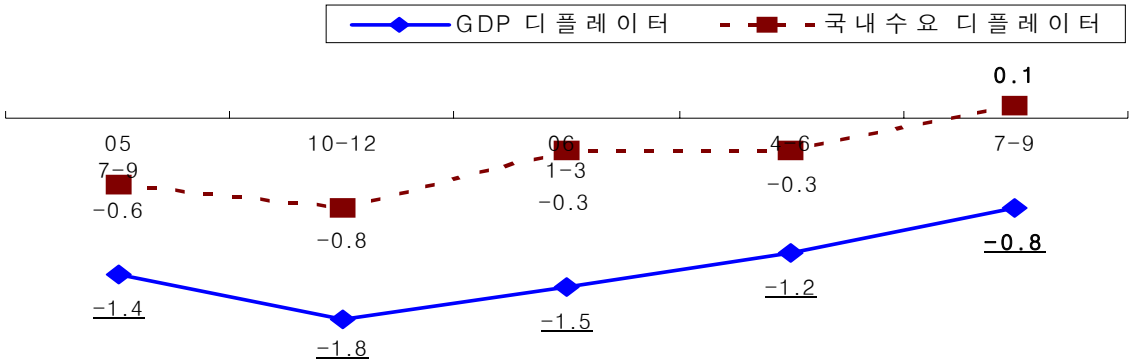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민간연구기관 등

■ 한편 3/4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8%로, 2005년 3/4분기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 또한 국내수요 디플레이터는 2004년 4/4분기 이래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과 일치하는 등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시화되는 움직임을 보임.

그림 3. GDP 디플레이터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일본 내각부

2. 주요 경제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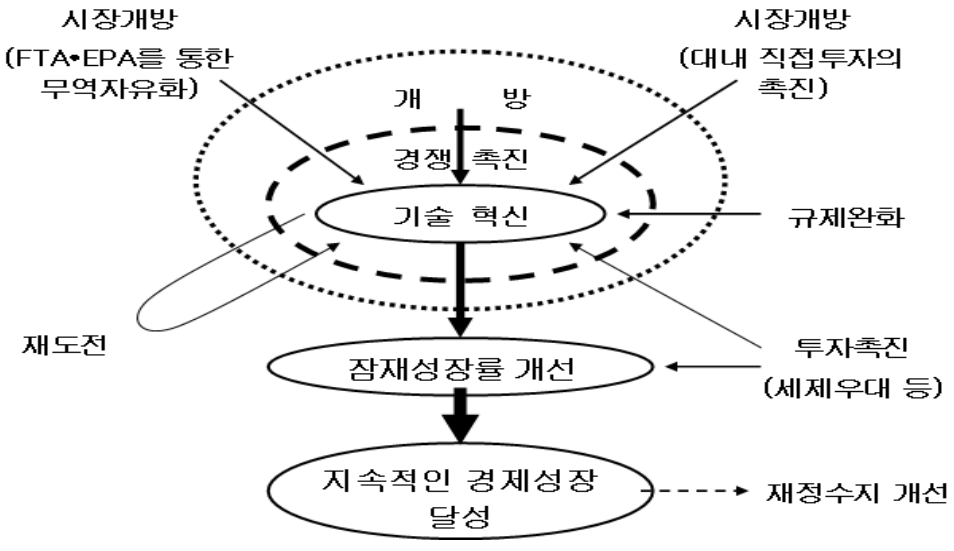
가. 국내경제 현안 : 아베 신임총리의 등장과 경제노선

■ 9월 26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신임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임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아베 시대가 열리게 됨.

■ 아베의 경제정책 노선: 성장-재도전지원의 조화

-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노선은 개방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개방 → 기술혁신 → 잠재성장률 향상 → 고성장」의 전략을 채택함.
- 이것은 공급능력 제고와 경제주체의 유인을 강조하는 공급중시(supply-side)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도전 지원'을 통해 공급중시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음.

그림 4. 아베 총리의 경제철학 요점



자료: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2006.9.12)

■ 성장전략: 개방과 기술혁신

-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구상(「새로운 나라 만들기」)에서 "성장 없이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성장우선주의**를 표방함.
- 아베의 정책구상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노선을 계승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고이즈미의 노선에 대해 아베 총리는 "성장 없이는 미래가 없다"로 차별화하면서 성장중시 전략을 채택함.
- 아베는 이러한 성장중시 전략을 위한 처방전으로서 '개방과 기술혁신'을 제시함.

① 개방

- 아베 총리가 제시한 '개방'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연대협정(EPA)에 의한 무역자유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장개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무역자유화 확대
  - ○ 일본이 시장개방을 통해 성장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면, 일본기업은 폭넓은 해외진출로 아시아의 성장력을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 아베는 자신의 저서(『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저출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겠지만,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국내 수요하락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의 성장 중심인 아시아를 시장으로 하게 되면 국내의 저출산도 약점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대일 직접투자 촉진
  - ○ 아베는 "대일 직접투자가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개방해나가고자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본의 금융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개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1)]
  - ○ '런던, 뉴욕에 견줄 수 있는 일본의 금융시장 육성'을 제시함(9월 1일 정권구상).
- 규제완화
  - ○ 규제완화는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여 기술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의 의미를 가짐.

② 기술혁신

1) 藤田勉(2006).

- 또한 아베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량이 둔화되더라도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 아베는 특히 2000년경에 유행한 'IT 혁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 ○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일본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 향후 IT와 로봇의 활용에 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면 기술혁신의 성과에 의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프트 및 하드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아름다운 나라로』).
- '최첨단산업의 R&D 및 중소기업 강력 지원'이라는 정책과제 제시(9월 1일 정권구상).

■ 재도전 지원

- **재도전 지원**은 아베의 경제정책 노선에서 성장중시와 함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음.
  - ○ 이것은 공급중시 경제정책의 취약점인 경쟁의 부작용(즉 도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 ○ "사회적 격차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고이즈미 총리와는 달리 경쟁에 기초한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재도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아름다운 나라로』).
  - ○ '여성과 고령자 등의 보다 적극적인 고용 촉진', '재택근무 인구 확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함(9월 1일 정권구상).
  - ○ 재도전 지원은 사회적 패자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즉 패자부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향후 기업의 협력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

나. 대외경제 현안 : 일본의 FTA 추진 동향

■ 일본은 필리핀과 네 번째로 FTA를 체결하고 광역 동아시아 FTA(ASEAN+6)를 제안하는 등 최근 역내국과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의 FTA는 ASEAN 각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싱가포르(02.01), 멕시코(04.09), 말레이시아(05.12), 필리핀(06.09)과 FTA를 체결한 상태임.
-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최초의 16개국 비공식 경제장관회의(06.08)에서 이들간의 FTA와, 경제통합 추진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판 OECD' 창설을 제안, 이를 위해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 설립 지원도 발표함.
- 일본은 이들 16개국이 밀접한 국제분업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ASEAN+6 FTA가 체결되면 전세계의 절반 가량인 31억 인구에 전세계 GDP의 1/4에 해당하는 GDP 9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되는 것으로, 기존의 동아시아(ASEAN+3) FTA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지대하다고 주장함.

■ 일본 FTA 정책의 특징은 1) FTA 대상으로 ASEAN 우선시, 2) 자국 농수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반영한 FTA 체결, 3) 지식재산권과 투자규범의 강화 중시, 4) FTA를 지역통합 수단으로 활용 등의 네 가지로 집약됨.

-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의 발전 가능성, 상호 긴밀한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일본의 지대한 영향력, 일본의 산업구조와 경쟁력 실태(1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 등 일본이 처한 경제사회적 배경에 기인함.

■ 이처럼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본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함.

- 대외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ASEAN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부처간 합의 도출 및 정치계의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지 않아 전략과 추진현황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임.
  - ○ 한국과 ASEAN은 기존의 ASEAN+1 매듭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중국은 당분간 ASEAN+3를 중시해야 한다며 냉담하게 반응함. 일본이 ASEAN+3의 로드맵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사실상 역내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중론임.
  - ○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글로벌 경제전략」이라는 초안을 2006년 4월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5월에 「글로벌 전략」이라는 최종 보고서로 확정했지만, 관련 성청은 이러한 민감사안에 대해 자신들과 사전논의가 미흡했다고 반발해 최종안에서는 광역 동아시아 FTA 추진안이 삭제됨.

■ 일본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특징을 지닌 한국은 일본의 ASEAN 중시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시점에서 한·ASEAN FTA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청되며 장기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의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자국의 강력한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서비스업의 경쟁력 여건을 감안해 역내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시장개방과 이와 연관된 투자와 서비스 및 규범의 조율·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ASEAN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ASEAN은 EU나 서구에 비해 우리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한·ASEAN FTA에서 남아 있는 투자 및 서비스, 여타 협력의제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은 역내 중견국간 협력 강화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양측간에 이 지역의 경제개발 지원 및 역내 통합 기반이 될 수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3.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6년 11월 현재)

단계	대 상	현 황	대상국 선정 이유 및 주요 쟁점 (일본의 총교역대비 비중, %)
발효	싱가포르	2002. 11	농산물 민감품목 미미, ASEAN FTA 교두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2.3)
	말레이시아	2006. 7	ASEAN 선발 회원국(2.4)
	멕시코	2005. 4	FTA 다체결국, 미체결의 불이익 회피(0.9)
협상완료/협상중	필리핀	2004. 2 개시 2006. 9. 9 체결	ASEAN 선발 회원국, 자국 간호사 및 간병인의 일본 유입(1.5)
	태국	2004. 2 개시	ASEAN 선발 회원국(3.4)
	인도네시아	2005. 7 개시(06.10 6차 종료) 2006. 체결 목표	자국 간호사, 간병인의 일본 유입(2.7)
	브루나이	2006. 2 개시(8월 2차 종료)	ASEAN 회원국(0.2)
	ASEAN	2005. 4 개시(8월 5차 종료) 2007. 3. 체결 목표	밀접한 상호 의존도. 일본의 영향력, 중국 견제(13.2, CLM 제외)
	한국(중단)	2003. 10 개시(2004. 11. 6차)	인접한 OECD 회원국, 역내통합의 모델 제시(6.4)
	칠레	2006. 2 개시(11월 5차 종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FTA 다체결국(0.5)
	GCC	2006. 7 개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8)
공동연구	인도	2006. 5 완료, 2008년 협상체결 목표	BRICs와의 FTA, 고관세 국가(0.6)
	베트남	2006. 2 개시 2007. 1 협상 개시(06.10 발표)	ASEAN 회원국(0.7)
	호주	2005. 11. 개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자원부국(3.3)
	스위스	2005. 10 개시	EFTA 회원국, 선진국(0.6)
장기검토	ASEAN+3 (동아시아)	-민간연구에서 2009년 협상개시, 2011년 체결, 2020년 완전 자유화 제시 -2007년부터 정부간 검토 개시	광역 역내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
	동아시아+3	일본이 2008년 협상개시, 2010년 체결 제안	전세계 인구의 1/2(31억명), GDP의 1/4(9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경제권
	캐나다, 대만, EFTA, MERCOSUR,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FTA 제안 혹은 관심 표명		

자료: 김양희(2006) 및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3. 향후 경제전망

■ 국제기관 및 일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6년도 및 2007년도 일본경제는 각각 2.5%,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실질 GDP 기관평균 기준).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2006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미국경기 감속 영향(수출 둔화),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IT분야의 생산스피드 조정,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스피드는 3/4분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0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일본경제는 IT부문의 조정압력에 대한 비IT부문에서의 흡수 여력 확대, 기업의 3대(고용・설비・채무) 과잉 해소, 윤택한 자본스톡 등으로 인해, 2004년의 정체국면과는 달리 상당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개인소비는 기본적으로는 고용여건 개선, 기업수익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 하에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2006년도(2006.3~2007.4) 경기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피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일본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해외기관			국내기관						전체 기관 평균
	OECD	IMF	Global Insight	日經研	NIKKEI NEEDS	日總研	닛세이	히다치	신금중앙	
2006	2.8	2.7	2.5	2.3	2.3	2.3	2.3	2.5	2.4	2.5
2007	2.2	2.1	2.1	1.9	1.8	2.5	1.8	1.8	2.1	2.0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전망	2007년도 전망
실질 GDP	3.3	2.3	1.9
민간최종소비지출	2.6	1.0	1.4
민간주택투자	−0.2	0.6	0.5
민간기업설비투자	7.3	9.6	4.4
정부최종소비지출	1.4	0.5	0.7
공적고정자본형성	−1.4	−13.8	−4.5

수출	9.1	8.6	6.2
수입	6.5	4.8	4.5
(국내수요 기여도)	(2.8)	(1.7)	(1.5)
(해외수요 기여도)	(0.5)	(0.6)	(0.3)
명목 GDP	1.8	1.8	2.0
소비자물가지수	0.1	0.2	0.3
실업률	4.4	4.1	3.9
경상수지(명목GDP대비)	3.8	4.0	4.6
환율	113.3	116.4	113.8

주: 1) 연도는 회계연도(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 기준임.
2) 아래 부분의 상세 표는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11.17)에서 작성
자료: OECD(2006 May), IMF(Sept.), Global Insight(2nd Quarter),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11.17), 日本經濟新聞(NEEDS)(11.14), 日本總合研究所(11.15), ニッセイ基礎研究所(10.17), 日立總合計畵研究所(10.26).

■ 2007년도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과 단카이 세대[2]의 대량 정년(퇴직일시금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인건비 경감을 통한 기업수익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상반기 경기둔화 이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수급밸런스의 개선을 배경으로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만한 임금상승, 가계의 저가품 소비지향, 전년대비 자원가격 상승속도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대폭적인 감속, IT부문 생산조정 및 미·일 통상마찰 악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우려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또 다시 정체국면에 빠질 수도 있음.

- 향후 일본경제는 ①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중기적인 확대국면에 있고, ②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③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 · 재고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 기조의 대폭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성장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전후 베이붐 세대를 의미

■ 현재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일본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구조개혁과 금융완화의 정책조합임.

- 당면 정책과제는 구조개혁의 지속을 통해 낮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완화(저금리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중기적 관점에서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과 중립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조정이 필요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재건과 함께 인구감소 하에서의 경제활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임. 즉 재정적자, 고령·인구감소사회 도래 등이 기업·가계의 기대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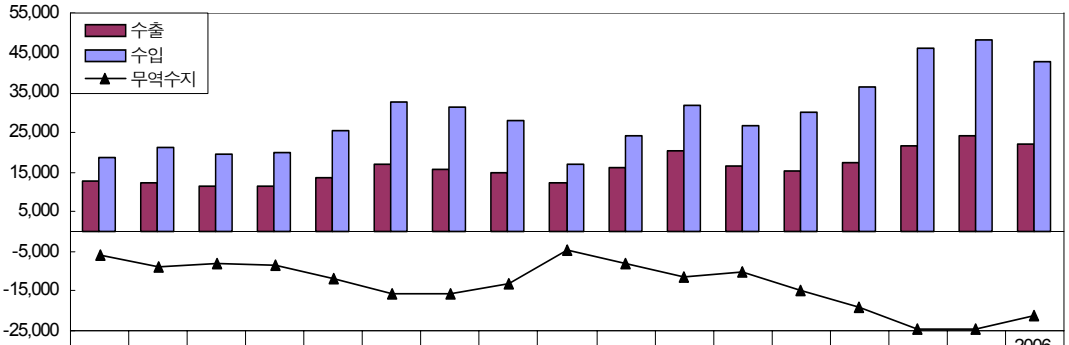
1. 교역 부문

■ 한국의 최대수입국인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대일수입 증가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 심화 문제가 곧바로 대일감정으로 연결되어 양국간 경제협력 전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6년 1~10월 한국의 대일수출과 대일수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7%, 6.9% 증가한 218억 달러, 429억 달러를 기록한 결과, 무역수지는 2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00년 11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2년 147억 달러, 2003년 190억 달러, 2004년 244억 달러로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왔으나, 2005년에는 243억 달러로 미세하게나마 감소세로 전환됨.
- 2006년 9월 현재 양국간 교역은 일본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최대 수입국이며, 한국이 일본의 3대 수출국, 6대 수입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5. 연도별 한국의 대일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0
수출	12,638	12,356	11,599	11,564	13,523	17,049	15,767	14,771	12,238	15,862	20,466	16,505	15,143	17,276	21,701	24,027	21,793
수입	18,574	21,120	19,458	20,016	25,390	32,606	31,449	27,907	16,840	24,142	31,828	26,633	29,856	36,313	46,144	48,403	42,861
무역수지	-5,936	-8,764	-7,859	-8,452	-11,867	-15,557	-15,682	-13,136	-4,602	-8,280	-11,362	-10,128	-14,713	-19,037	-24,443	-24,376	-21,0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는 자본재 및 원자재 중심으로 상호의존 및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수출증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고착되었음.

- 한국의 대일 업종별 수출입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부품,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등으로 대표되는 전기전자 및 기계제품의 대일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동 부문의 대일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한국의 對日 업종별 수출입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품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0
〈주요 수출상품〉						
전자부품	2,302	2,924	3,701	4,028	4,683	5,941
유류제품	3,127	2,404	2,631	3,362	3,720	3,469
철강제품	1,189	1,026	1,365	2,193	2,882	2,110
산업용전자	2,009	1,467	1,489	2,136	2,407	1,571
석유화학제품	501	482	660	941	1,129	1,055
〈주요 수입상품〉						
철강제품	2,722	3,533	4,327	6,273	6,897	6,450
전자부품	5,381	6,061	7,266	7,525	7,677	6,386
석유화학제품	1,734	1,701	1,989	2,635	3,347	3,201
정밀화학	1,787	1,927	2,266	2,693	2,934	2,666
산업용전자	2,543	2,823	3,396	4,655	3,798	2,616

주 : MTI 2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이와 같이 대일수입 증가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의 확대균형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 수출유망 품목의 발굴 등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육성, 일본 유망기업의 對韓 투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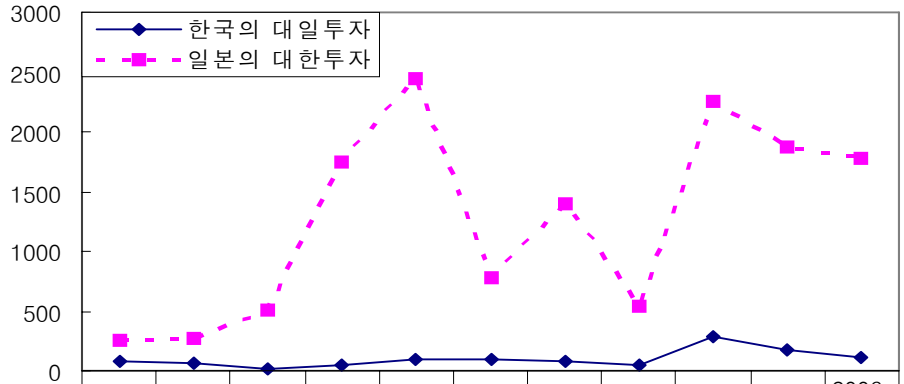
2. 투자 부문

■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개선과 양국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투자 규모는 1999~2003년 기간 동안 증가와 감소를 거듭해오다 2004년에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2005년에 또다시 감소세로 선회하였음.

- 양국간 투자관계는 다음과 같음.
  - ○ 일본은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6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3대 외국인투자국임.
  - ○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의 7대 해외직접투자국, 20대 외국인투자국임.
- 2006년 1~9월 현재 한국의 대일투자와 일본의 대한투자는 각각 1억 1,300만 달러, 17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는 2005년 연간 실적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6. 양국의 연도별 對日 투자/對韓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
한국의 대일투자	80	57	23	49	92	88	82	52	289	176	113
일본의 대한투자	255	265	504	1,750	2,448	776	1,403	541	2,258	1,879	1,781

주 : 한국의 對日投資는 투자기준으로, 일본의 對韓投資는 신고기준으로 작성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동향』,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동향』

- 특히, 한국의 대일투자는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2004년 한국의 대일투자를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3.8%, 34.0%를 기록하여,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1~9월에는 도소매업의 투자가 격감하고, 제조업에의 투자(각각 22.0%, 32.0%)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대한투자에서도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에의 투자가 2005년에 다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2006년에는 다시 제조업에의 투자가 늘고 있음.
  -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에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분야에의 투자비중이 높음.
  - ○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향후 물류,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특히 게임산업이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대행업, 영화제작・배급업, 문화공연・기획 등 문화산업분야에서 기업간 제휴・상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6. 한국의 對日투자 내역(투자기준)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
서비스업	36,707	15,549	23,017	17,159	98,005	90,243	56,466
제조업	10,626	25,072	9,053	8,540	32,131	38,713	36,048
도소매업	42,597	36,870	33,984	7,620	155,440	25,994	11,583
숙박음식점업	47	530	122	4,703	244	11,163	4,232
부동산업	0	37	0	0	373	5,648	600
통신업	1,559	9,534	15,163	12,688	1,847	2,652	1,063
운수창고업	775	829	171	317	739	1,458	1,775
건설업	0	0	166	0	0	368	834
광업	0	0	0	497	0	0	0
농림어업	56	0	40	0	0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동향』

표 7. 일본의 對韓투자 내역(신고기준)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
농·축·수산업및광업	2,082	2,053	7,689	1,745	0	2,349	53
제조업	721,933	263,325	569,356	337,600	1,991,273	643,455	376,861
서비스업	1,726,847	508,863	824,362	200,585	269,595	1,231,333	211,140
전기·가스·수도·건설	1,039	2,021	2,135	419	1,611	1,701	3,088

자료 :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동향』

참고자료

김양희. 2006.9.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8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형근. 2006.9.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8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6.12. 「2007년 일본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41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藤田勉. 2006.9. 『安倍晋三の経済政策を讀む』, インデック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6.11. 『四半期經濟豫測』. (http://www.jcer.or.jp/)

日本 貿易振興會(JETRO). 『日本の貿易統計・國際收支統計』. (http://www.jetro.go.jp)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http://www.mocie.go.kr/index.html)

한국무역협회, *KOTIS*.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日本經濟新聞(2006.11.14) (http://www.nikkei.co.jp/keiki/gdp/20061114c89be000_14.html)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fta/index.html)